

# 〈司馬相如列傳〉과 〈風月瑞仙亭〉의 敘事 技法

백 승 업\*

## ◁ 目次 ▷

- |                         |                                   |
|-------------------------|-----------------------------------|
| I. 序論                   | III. 〈風月瑞仙亭〉의 小說化 과정에서의 虛構的 敘事 技法 |
| II. 〈司馬相如列傳〉의 虛構的 敘事 技法 | 1. 등장 인물의 재 설정                    |
| 1. 서술 시간의 조절            | 2. 배경의 새로운 설정                     |
| 2. 대화체의 활용              | IV. 結論                            |

## I. 序論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司馬遷의 《史記》〈司馬相如列傳〉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후 人口에 膾炙되다가 小說과 戲曲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중국에서 뿐 아니라 중국 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漢代의 역사가 司馬遷이 《史記》를 저술함에 있어 司馬相如의 列傳을 포함시킨 것은 그가 지은 몇 편의 뛰어난 賦 때문이었다. 그러나 司馬遷의 후예들은 司馬相如의 賦보다는 그의 列傳에 소개된 司馬相如와 卓文君 간의 사랑 이야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비록 역사의 기록이지만 두 사람간의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는 小說과 戲曲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 주었기 때문이다.

司馬相如와 卓文君의 사랑 이야기는 《史記》 이외에 《漢書》에도 〈司馬相如列傳〉이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 그 뒤 南宋 사람 風月舟人이 쓴 《綠窓新話》 卷下에 〈文君窺長卿撫琴〉이 나오는데 《史記》의 내용을 출전을 밝히며 소개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鳳求凰〉의 운문을 삼입하였다. 이 밖에 羅輝은 《醉翁談錄》에서 傳奇類를 소개하는 가운데 〈卓文君〉이라는 제목을 언급하였는데 바로 이 작품을 말한 것이다. 소설 뿐 아니라 宋代의 官本 雜劇 〈相如文君〉과 元代的 雜劇 〈

\* 檀國大學校 中文科 講師

相如題柱),〈鶴鶴裘〉,〈卓文君白頭吟〉,〈風月瑞仙亭〉과 戲文 〈琴心記〉 등 희곡도 모두 司馬相如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들이다.<sup>1)</sup> 한편, 〈風月瑞仙亭〉은 현존하는 宋代 話本小說 가운데 하나로 《清平山堂話本》에 남아있다. 이 작품은 뒤에 《警世通言》 卷六 〈俞仲舉題詩遇上皇〉의 頭回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역시 《史記》의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진 허구적 서사물이다.

인물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 중심이 되는 敘事의 중심은 하나다. 즉 敘事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물 또는 사건을 서술하되 과연 어떤 짜임새로 가장 효율적인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때, 송신자는 話者 또는 作家가 되고 수신자는 聽者 또는 讀者가 되며, 서술의 짜임새는 바로 敘事構造가 된다.

小說의 敘事構造를 논함에 있어 우리는 深層構造와 表面構造라는 용어를 흔히 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학자의 서로 다른 용어들을 마주하게 된다. 몇몇 중요한 학자들이 제시한 용어들은 오늘날 문예 비평에서 혼용되고 있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포스터는 '스토리'와 '플롯'의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스토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된 사건의 서술이며, '플롯'은 인과 관계가 강조된 사건의 서술이다. 한편,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은 '파블라'와 '쉬제'의 개념을 생각해냈다. 쉬클로프스키는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파블라'라 불렀고, 그 재료를 예술적으로 구성한 것을 '쉬제'라 불렀다. 토마세프스키는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작은 사건들 즉 모티프의 총체를 '파블라'라 불렀고, 이러한 모티프의 총체를 예술적으로 배열하여 만든 것을 '쉬제'라 불렀다. 그런가하면, 토도로프는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발상이 다른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그는 서사적 구조를 '이스투아르'와 '디스쿠르'로 나누었는데 문학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원초적 요소를 '이스투아르', '이스투아르'가 화자에 게서 독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이 문학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를 '디스쿠르'로 불렀다. 결국 '스토리'와 '파블라', '이스투아르'를 같은 개념으로 묶고, '플롯'과 '쉬제', '디스쿠르'를 또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데, 전자를 '심층 구조'라 하고 후자를 '표면 구조'라 부른다.<sup>2)</sup>

司馬相如와 卓文君 故事의 경우 위에서 소개한 구조의 개념을 적용하면, 《史記》〈司馬相如列傳〉의 기록은 심층 구조로, 〈風月瑞仙亭〉과 같이 이를 토대로 소설로

1) 《中國歷代小說辭典·第二卷》(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3), 9-10쪽 참조.

2) 金天惠, 《소설 구조의 이론》(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170-172쪽.

재창작된 작품은 표면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史記》의 기록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司馬相如列傳〉이 단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된 사건의 서술이고, 그저 〈風月瑞仙亭〉의 재료에 해당될 뿐이며, 모티프의 총체일 뿐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司馬相如列傳〉의 기록이 너무도 소설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역사의 기록 〈司馬相如列傳〉의 敘事構造에 보이는 소설적 요소를 '시간'과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뒤에 나온 話本小說 〈風月瑞仙亭〉의 敘事構造를 '등장 인물'과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史記》의 기록이 역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구적 서사 기법을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한 편, 〈風月瑞仙亭〉 또한 허구적 서사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설로서의 면목을 갖추는데 성공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司馬相如列傳〉의 虛構的 敘事 技法

〈司馬相如列傳〉은 상당 분량의 역사 기록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司馬相如가 지었다는 賦를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고, 정작 小說의 재료가 되었던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관한 기록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후대의 才人과 문인들은 정작 司馬相如가 지었다는 몇 편의 賦보다는 짧막하게 소개된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과연 〈司馬相如列傳〉에 소개된 짧막한 사랑 이야기가 이처럼 人口에 膾炙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은 물론 司馬相如와 卓文君의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에 있다. 이들은 당시 봉건 예교 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사랑의 드라마를 펼쳐 보인다. 젊은 재인 司馬相如와 아름다운 과부 卓文君은 첫 눈에 서로 반하여 애정을 키우고, 오직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는가 하면 신분의 제약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술집을 열어 생계를 꾸려간다. 이러한 이들의 과감하고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흥미와 공감, 그리고 대리 만족을 불러 일으켰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만이 수많은 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유전되다가 결국 소설로 정착하게 된 데는 드라마틱한 사랑의 행위 외에 司馬遷이라는 걸출한 역사가의

독특한 수법의 기록에도 그 공을 돌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司馬遷은 《史記》에서 이들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사랑의 도피, 그리고 司馬相如의 입신 출세로 결국 이들의 사랑이 주위의 인정을 받아 해피 엔딩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허구적 수법의 사실 기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허구적 수법이 있기에 〈司馬相如列傳〉을 후에 소설이나 희곡으로 재창작된 작품들의 단순한 재료 즉 파블라의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게 된다.

우선 〈司馬相如列傳〉의 서사 가운데 司馬相如의 賦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I.

司馬相如의 성장 배경부터 景帝 때 武騎常侍라는 벼슬을 하다가 면직되어 梁孝王을 따라 梁나라 땅으로 건너가 子虛賦를 짓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서술.

司馬相如是 蜀郡 成都 사람으로 字는 長卿이라 한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겼고 검술을 익혔다. 이에 아버지가 犬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공부를 마친 相如是 藺相如의 사람됨을 흠모하여 이름을 相如로 바꾸었다. 그는 재물로 郎이 되었고, 孝景帝 때 벼슬을 하여 武騎常侍가 되었으나 만족해하지 않았다. 그 당시 景帝는 辭賦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梁孝王이 齊나라 사람 鄒陽, 淮陰 사람 枚乘, 吳나라 사람 莊忌 등 遊說家를 대동하고 입조하였다. 相如是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병을 핑계삼아 사직한 다음 梁나라 땅으로 놀러갔다. 이에 梁의 孝王은 여러 선비들에게 그와 함께 기거할 것을 명하였으니 相如是 많은 선비들과 어울려 몇 년을 놀며 지냈으며 마침내 子虛賦를 지었다.<sup>3)</sup>

## II.

梁孝王이 죽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臨邛의 縣令 王吉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 고장 부자 卓王孫의 집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과부가 된 卓王孫의 딸 卓文君과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

梁孝王이 죽자 相如是 다시 돌아갔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스스로 할 일이 없었다. 평소에 臨邛의 縣令 王吉과 친하게 지냈는데 王吉이 이렇게 말하였다.

3) 司馬相如者，蜀郡成都人也，字長卿。少時好讀書，學擊劍，故其親名之曰犬子。相如既學，慕藺相如之爲人，更名相如，以貴爲郎，事孝景帝，爲武騎常侍，非其好也。會景帝不好辭賦，是時梁孝王來朝，從遊說之士齊人鄒陽、淮陰枚乘、吳莊忌夫子之徒，相如見而說之，因病免，客遊梁。梁孝王令與諸生同舍，相如得與諸生游士居數歲，乃著子虛之賦。

“長卿은 관직을 찾아 돌아다니던 지가 오래 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내게로 오시오.”

이에 相如는 그의 都亭에 머물게 되었다. 臨邛의 縣令은 짐짓 그를 공경하는 척 하며 매일 相如에게 인사를 왔다. 相如는 처음에는 그를 만났지만 그 후로는 병을 핑계삼아 하인을 시켜 王吉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럴수록 王吉은 더 조심하여 예의를 다했다. 臨邛에는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 卓王孫의 집에는 부리는 하인만 8백 명이나 있었고, 程鄭의 집에도 수백 명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縣令께 귀한 손님이 오시거든 같이 모시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縣令을 초대하였다. 縣令이 가보니 卓王孫의 집에는 손님이 백여 명이나 되었다. 한낮이 되어 司馬長卿을 모시고자 하였으나 長卿은 여전히 병이 나 갈 수가 없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臨邛의 縣令은 감히 혼자서는 잔치 음식을 맛볼 수 없어 스스로 相如를 모시러 갔다. 그러자 相如는 여쭙 수가 없어 억지로 나가 자리에 앉으니 모두들 탄복하며 흠모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臨邛의 縣令이 앞으로 나서더니 琴을 연주하며 말하였다.

“듣자하니 長卿께서 琴을 좋아하신다 하니 원컨대 한 곡 즐겨보시지요.”

相如는 사양하면서도 한 두 곡을 연주하였다. 이 때 卓王孫의 딸 文君은 젊은 과부로 음악을 좋아하였다. 이에 相如는 짐짓 縣令의 제의를 존중하는 척 하면서 실은 거문고 선율로 文君의 마음을 움직였다. 相如는 수레와 말을 따라 臨邛에 왔는데 그 모습이 침착하고 우아하여 대단히 아름답다. 이제 卓氏 집에서 마시고 즐기며 琴을 연주하니 文君이 김 뜬으로 몰래 엿보고 그 마음이 대단히 흡족하여 그를 좋아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에게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었다. 잔치가 끝나자 相如는 사람을 시켜 文君의 하인을 통해 후한 선물을 하며 은근한 정을 전하였다. 文君은 밤에 相如에게 도망을 쳤고 相如는 그녀와 함께 부리나케 成都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에서 相如가 놀고 지내고 네 벽만 하릴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卓王孫은 대노하여 “내 딸은 너무 못났다. 내 비록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돈은 한 푼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누군가 王孫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도 했지만 王孫은 끝내 듣지 않았다.<sup>4)</sup>

### III.

司馬相如와 卓文君이 臨邛으로 돌아가 술장사를 하게되는 과정과 이를 부끄럽게 여긴 卓王孫이 재물을 나누어주어 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

4) 會梁孝王卒, 相如歸, 而家貧, 無以自業. 素與臨邛令王吉相善 : 吉曰 : 「長卿久宦遊不遂, 而來過我。」於是相如往, 舍都亭. 臨邛令繆爲恭敬, 日往朝相如. 相如初尚見之, 後稱病, 使從者謝吉, 吉愈益謹肅. 臨邛中多富人, 而卓王孫家僮八百人, 程鄭亦數百人, 二人乃相謂曰 : 「令有貴客, 爲具召之。」并召令. 令既至, 卓氏客以百數. 至日中, 謁司馬長卿, 長卿謝病不能往, 臨邛不敢嘗食自往迎相如. 相如不得已, 彊往, 一坐盡傾. 酒酣, 臨邛令前奏琴曰 : 「竊聞長卿好之, 願以自娛。」相如辭謝, 爲鼓一再行. 是時卓王孫有女文君新寡, 好音, 故相如繆與令相重, 而以琴心挑之. 相如之臨邛, 從車騎, 雍客聞雅善都 : 及飲卓氏, 弄琴, 文君竊從戶窺之, 恐不得當也. 既罷, 相如乃使人重賜文君侍者通殷勤. 文君夜亡奔相如, 相如乃與馳歸成都. 家居徒四壁立. 卓王孫大怒曰 : 「女至不材, 我不忍殺, 不分一錢也。」人或謂王孫, 王孫終不聽.

文君은 한참이 지나도 사는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였다.

“長卿께서는 차라리 臨邛으로 가 형제들에게 돈을 빌린다면 죽어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것이니 설마 이렇게까지야 고생스럽겠습니까?”

이에 長卿은 함께 臨邛으로 가 수레와 말을 몽땅 팔아치우고 술집을 사들여 술장사를 시작하였고 文君에게 주도 일을 보게 하였다. 相如 자신은 쇠코 잠방이를 입고 머슴들과 같이 허드렛일을 하며 장판에서 술잔을 씻었다. 卓王孫은 이 소식을 듣고 부끄럽게 여겨 두문불출하였다. 그러자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王孫에 이르기를 “1남 2녀의 자식이 있는데 부족한 것은 결코 재산이 아닙니다. 이제 文君이 이미 司馬長卿에게 몸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長卿은 여러 지방을 두루 여행하였고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그 재주는 족히 의지할만 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현령의 손님이거늘 어찌 이처럼 치욕스럽게 한 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卓王孫은 하는 수 없이 文君에게 시종 백 명을 나누어주고 백만의 돈과 처음 시집갈 때 장만했던 의복이며 이불, 재물을 주었다. 文君은 이에 相如와 함께 成都로 돌아가 밭과 집을 사고 부자가 되었다.<sup>5)</sup>

#### IV.

司馬相如의 子虛賦가 武帝의 눈에 들어 벼슬을 얻게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

이렇게 살기를 한 참 뒤에 蜀 사람 楊得意가 狗監의 벼슬에 올랐다. 천자는 子虛賦를 읽으며 마음에 들어하며 말하였다.

“짐이 이런 글을 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하는구나!”

이 말에 楊得意가 아뢰었다.

“신과 같은 읍에 사는 司馬相如라는 사람이 스스로 그 賦를 지었다 합니다.”

천자는 깜짝 놀라 곧 相如를 불러들였다. 相如가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하나 이는 諸侯들의 일로 천자께서 보시기에 족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天子游獵賦를 지었다가 완성되면 상주할까 하옵니다.” 천자는 이를 허락하고 尙書에게 筆札을 내리도록 명령하였다. 相如是 ‘공허한 말’의 의미인 子虛로 하여금 楚나라를 칭송케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의 의미인 烏有先生로 하여금 齊나라를 위해 楚를 힐난하게 하고, ‘이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의 無是公으로 하여금 천자의 뜻을 밝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가공의 세 사람으로 辭를 지어 천자와 제후의 苑囿를 논하였는데 결론은 검약으로 귀결되어 이로써 풍간을 삼았다. 천자에게 바치니 천자가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 辭에 이르기를,

…………… 생 …………… 략……………

5) 文君久之不樂，曰：「長卿第俱與臨邛，從昆弟假貸猶足爲生，何至自苦如此！」相如與俱之臨邛，盡賣其車騎，買一酒舍酤酒，而令文君當釀。相如身自著犢鼻褌，與保庸雜作，滌器於市中。卓王孫聞而恥之，爲杜門不出。昆弟諸公更謂王孫曰：「有一男兩女，所不足者非財也。今文君已失身於司馬長卿，長卿故倦游，雖貧，其人材足依也，且又令客，獨奈何相辱如此！」卓王孫不得已，分子文君僮百人，錢百萬，乃其嫁時衣被財物。文君乃與相如歸成都，買田宅，爲富人。

賦를 바치자 천자는 이로써 (相如를) 郎으로 삼았다.<sup>6)</sup>

## 1. 서술 시간의 조절

우선 司馬相如는 서술의 시간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허구적 소설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소설에 있어 화자는 어떤 부분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서술하여 시간 진행을 느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반대로 건성으로 대충대충 이야기하여 시간 진행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또 어떤 부분은 아예 언급 없이 뛰어넘어 서술할 수도 있다.<sup>7)</sup> 그런데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 <司馬相如列傳>에서 司馬遷은 바로 이러한 소설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司馬遷은 司馬相如의 일대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시간의 안배가 마치 소설에서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司馬遷은 먼저 제1단계에서 司馬相如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벼슬을 했으며, 어떤 연유로 梁孝王의 遊說家들과 어울려 梁나라 땅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축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司馬相如는 기원전 179년에 태어나 118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그가 梁나라에서 子虛賦를 지은 것은 景帝 때의 일이고 景帝는 기원전 157년부터 141년까지 재위하였으니 빠르면 그의 나이 22세 때, 늦으면 38세 때에 子虛賦를 지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기록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의 나이 22세 혹은 38세까지의 행적에 대한 서술이 된다. 즉 짧으면 22년, 길게 잡으면 38년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 제2단계의 개시 부분을 보면 司馬相如가 成都로 돌아온 시점이 梁孝王의 죽음 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梁孝王은 기원전 145년에 죽었다.<sup>8)</sup> 그렇다면 제1단계에서 소개하는 행적의 기간은 길게 잡아 기원전 145년 직전까지로 볼 수 있다. 결국 景帝의 재위

6) 居久之，蜀人楊得意爲狗監，侍上。上讀子虛賦而善之，曰：「朕讀不得如此人同時哉！」得意曰：「臣邑人司馬相如自言爲此賦。」上驚，乃召問相如。相如曰：「有是。然此乃諸侯之事，未足觀也。請爲天子游獵賦，賦成奏之。」上許，令尙書給筆札。相如以「子虛」，虛言也，爲楚稱；「烏有先生」者烏有此事也，爲齊難；「無是公」者，無是人也，明天子之義。故空藉此三人爲辭，以推天子諸侯之苑囿。其卒章歸之於節儉，因以風諫。奉之天子，天子大說。其辭曰：……賦奏天子以爲郎。

7) 김천혜, 앞 책, 39쪽

8) 梁孝王은 孝景帝와 한 형제간으로, 그 어머니인 竇太后는 孝文帝와의 사이에 모두 네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첫째가 태자로 바로 孝景帝이고, 둘째가 梁孝王 武, 셋째가 參, 넷째가 勝이다. <史記·梁孝王世家>의 기록에 의하면, 梁孝王 武는 孝文帝 35년 즉 기원전 145년 6월 6일 죽은 것으로 되어있다.

기간으로 본 추정 기간과 梁孝王의 죽음으로 본 추정 기간을 종합해 볼 때 제1단계의 기간은 짧게는 22년, 길게는 34년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

司馬遷은 이렇게 20년이 넘고 길게는 34년이나 되는 긴 기간의 일을 몇 줄 안 되는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을 모두 마쳤다. 이쯤 되면 소설에서 말하는 '서술 시간'이 '서술되는 시간'보다 엄청나게 짧다. 작품 내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서술되는 시간'이라고 보고, 독자가 작품을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서술 시간'이라고 볼 때 위의 문장에서 '서술 시간'은 어려운 고문 해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한 반면 '서술되는 시간'은 최소한 20년이 넘는다. 이처럼 '서술 시간'이 '서술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것은 대부분의 역사 기록이 다 그렇다. 실로 몇 백년이나 되는 과거 역사 사실을 한 두 권의 책으로 축약하여 서술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司馬遷은 제2단계에서는 '서술 시간'을 현저하게 늘려 잡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용문의 기록에 의하면, 司馬相如是 梁孝王이 죽자 다시 成都로 돌아왔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지내다가 어느 날 卓王孫의 잔치에 초대받아 갔다가 卓文君과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날 밤으로 사랑을 도피를 하게 된다. 앞에서도 추정이 있었지만 梁孝王이 죽은 시점이 기원전 145년이니 적어도 司馬相如是 이 시기 이후로 成都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제2단계에서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司馬相如가 成都에 돌아온 후 얼마만에 卓王孫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司馬相如가 卓王孫의 집에 갔다가 과부가 된 그의 딸 卓文君을 만나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불과 하루만에 일어난다. 제1단계에서 '서술되는 시간'이 최소한 20년이 넘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2단계에서의 '서술되는 시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그런데 司馬遷은 이처럼 하루만에 일어난 사건을 오히려 20여 년 동안의 행적을 소개할 때보다 더 자세히, 더 많은 字數로 소개하고 있다. 字數로 볼 때 제2단계의 '서술 시간'을 제1단계보다 오히려 3배 정도 길게 잡고 있다.

제3단계에서는 장소 이동이 두 번 이루어지고 있다. 즉 司馬相如와 卓文君은 成都를 떠나 臨邛으로 가 술장사를 하다가 卓王孫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다시 成都로 돌아간다. 이 단계에서도 물론 정확한 시간은 계산이 어렵다. 단지 두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술되는 시간'이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되리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3단계에서의 '서술되는 시간'은 제1단계보다는 짧고 제



2단계보다는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단계에서 이 과정을 소개하는 '서술 시간'은 제2단계보다는 짧고 제1단계보다는 길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에서는 司馬相如가 지난 시절 썼던 子虛賦로 인해 武帝에게 등용되어 마침내 입신 출세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 역시 정확한 시간 계산은 힘들다. 그런데 武帝는 기원전 141년부터 87년까지 재위하였다. 그렇다면 司馬相如가 武帝에 의해 등용되었다면 그 시기를 아무리 빨리 잡아도 기원전 141년 이후가 된다. 司馬相如의 출생연도가 기원전 17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아무리 빨라도 그의 나이 38세 이후에야 겨우 武帝의 인정을 받아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司馬相如가 子虛賦로 등용된 후에 다시 武帝를 위하여 上林賦를 지은 것으로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4단계의 기록은 그가 武帝의 부름을 받은 후부터 上林賦를 짓게 되기까지의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이 될 것이다. 결국 제4단계의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의 '서술되는 시간'을 제3단계와 비슷한 '서술 시간'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의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순서를 정한다. 紀傳體의 역사서 《史記》 역시 마찬가지다. <司馬相如列傳>만 보더라도 우리는 司馬相如의 일생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순서에 맞춰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司馬相如列傳> 역시 순서가 아닌 파블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司馬遷은 '서술 시간'의 분배에 있어서는 이미 파블라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서술되는 시간'은 단 며칠에 불과한 제2단계의 행적을 눈에 띄게 길게 늘려 잡고 있다. 더구나 제2단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司馬相如와 卓文君이 처음 만나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는 단 하루 동안의 행적을 길게 늘려 잡아 상세하고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서술되는 시간'에 비해 '서술 시간'이 긴 것은 제3단계와 제4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가하면 제1단계에서는 무려 20년 내지 30년에 달하는 긴 '서술되는 시간'을 간단하게 축약하여 '서술 시간'을 현저하게 줄였다.

결국 위에 제시한 <司馬相如列傳> 가운데 '서술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제2단계이고 다음이 제4단계와 제3단계, 그리고 제1단계가 가장 짧다고 볼 수 있다. 司馬遷은 역사의 기록에 있어 이처럼 '서술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상 실존했던 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이와 같은 '서술 시간'의 조절은 사실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司馬遷은 조절을 시도했다. 그리고 조절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보아 후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부분, 즉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초점에서 벗

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서술 시간'을 축약하는 허구적 서사의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시간' 조절에 의한 허구적 敘事構造가 바로 〈司馬相如列傳〉의 기록 가운데 유독 司馬相如와 卓文君의 사랑 이야기가 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 2. 대화체의 활용

역사의 기록에 대화가 등장한다면 이는 虛構를 완벽하게 배제한 역사 기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후대의 역사가가 전대의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司馬相如列傳〉의 기록에는 몇 차례 대화가 등장한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등장 인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대화, 즉 독백에 가까운 대화이고, 마지막 4단계에 가서야 武帝와 신하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다운 대화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司馬遷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불완전한 대화를 이용하여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기술했을까? 〈司馬相如列傳〉에 등장하는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司馬遷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는 시점마다 대화체 문장을 등장시켜 서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곳에서도 우리는 역사 기록 〈司馬相如列傳〉의 허구적 서사 기교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賦를 제외한 〈司馬相如列傳〉의 서사 부분에 대화체는 모두 7번 등장한다. 그 가운데 4번은 2단계에 등장하고, 2번은 3단계, 그리고 나머지 1번은 4단계에 보인다. 1단계 도입 부분에는 대화체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대화체 문장과 사건의 전개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직접 대화체 문장을 인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화체 문장은 2단계에 보인다.

梁孝王이 죽자 相如는 다시 돌아갔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스스로 할 일이 없었다. 평소에 臨邛의 縣令 王吉과 친하게 지냈는데 王吉이 이렇게 말하였다.

“長卿은 관직을 찾아 돌아다니는 지가 오래 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내게

로 오시오.”

이에 相如는 그의 都亭에 머물게 되었다.<sup>9)</sup>

司馬相如는 梁孝王이 죽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야말로 재산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심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백수 실업자인 셈이다. 이런 그에게 王吉이라는 현령에게서 제의가 온다. 그런데 王吉은 臨邛의 현령이고, 臨邛은 바로 卓文君이 살고 있는 고장으로 이제 바야흐로 司馬相如의 臨邛으로의 공간 이동과 함께 두 사람간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려는 순간이 온 것이다. 司馬相如의 공간 이동,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서사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화체 문장이 처음 등장한다.

두 번째 대화체 문장은 卓王孫과 程鄭 사이의 대화인데 한 사람만의 말만 인용되었고 정작 누가 한 말인지는 분명치 않다.

臨邛에는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 卓王孫의 집에는 부리는 하인만 8백 명이나 되었고, 程鄭의 집에도 수백 명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縣令께 귀한 손님이 오시거든 같이 모시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縣令을 초대하였다. 縣令이 가보니 卓王孫의 집에는 손님이 백여 명이나 되었다.<sup>10)</sup>

위 대화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계기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卓王孫과 程鄭 가운데 누가 한 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臨邛의 부자 卓王孫 즉 卓文君의 부친은 臨邛의 현령 王吉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서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대화체 문장 역시 2단계에 등장한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臨邛의 縣令이 앞으로 나서더니 琴을 연주하며 말하였다.

“듣자하니 長卿께서 琴을 좋아하신다 하니 원컨대 한 곡 즐겨보시지요.”

相如는 사양하면서도 한 두 곡을 연주하였다. 이 때 卓王孫의 딸 文君은 젊은 과부로 음악을 좋아하였다. 이에 相如는 짐짓 縣令의 제의를 존중하는 척 하면서 실은 거문고 선율로 文君의 마음을 움직였다.<sup>11)</sup>

- 
- 9) 會梁孝王卒, 相如歸, 而家貧, 無以自業. 素與臨邛令王吉相善; 吉曰: 「長卿久宦遊不遂, 而來過我。」於是相如往, 舍都亭。
- 10) 臨邛中多富人, 而卓王孫家僮八百人, 程鄭亦數百人, 二人乃相謂曰: 「令有貴客, 爲具召之。」并召令. 令既至, 卓氏客以百數。
- 11) 酒酣, 臨邛令前奏琴曰: 「竊聞長卿好之, 願以自娛。」相如辭謝, 爲鼓一再行. 是時卓王孫有女文君新寡, 好音, 故相如繆與令相重, 而以琴心挑之。

음악을 즐기는 司馬相如와 卓文君 두 사람이 이제 琴의 연주를 매개로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순간이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역시 대화체 문장이 등장한다. 臨邛의 縣令이 司馬相如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에게 琴의 연주를 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에서 相如가 놀고 지내고 네 벽만 하릴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卓王孫은 대노하여 “내 딸은 너무 못났다. 내 비록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돈은 한 푼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누군가 王孫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도 했지만 王孫은 끝내 듣지 않았다.<sup>12)</sup>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밤중에 사랑의 도피를 단행한 司馬相如와 卓文君 두 사람에게 다친 현실은 돈 한 푼 없는 고단한 생활이었다.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이란 오로지 卓王孫의 이해와 협조 뿐이었다. 그러나 卓王孫은 대노하였고 단호하였다. 이들의 사랑에 대한 卓王孫의 배신감과 이로 인한 두 사람의 고단한 생활을 한 마디의 짧은 대화체 문장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한 마디는 또한 뒤 이어 전개될 司馬相如와 卓文君의 술장사와도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신분에 걸맞지 않은 천한 술장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의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文君은 한참이 지나도 사는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였다.

“長卿께서는 차라리 臨邛으로 가 형제들에게 돈을 빌린다면 죽히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것이니 설마 이렇게까지야 고생스럽겠습니까?”

이에 長卿은 함께 臨邛으로 가 수레와 말을 몽땅 팔아치우고 술집을 사들여 술장사를 시작하였고 文君에게 주모 일을 보게 하였다.<sup>13)</sup>

卓王孫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이제 공간의 이동을 단행하고 그 보다 더 힘든 결정 즉 신분에 맞지 않는 술장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 비록 지금 당장은 관직을 떠난 몸이지만 武騎常侍라는 벼슬도 했었고 梁孝王의 유세기들과 어울렸던 司馬相如와 臨邛의 부호 卓王孫의 딸 卓文君이 술집을 열어 술을 판다는 것은 웬만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

12) 家居徒四壁立。卓王孫大怒曰：「女至不材，我不忍殺，不分一錢也。」人或謂王孫，王孫終不聽。

13) 文君久之不樂，曰：「長卿第俱與臨邛，從昆弟假貸猶足爲生，何至自苦如此！」相如與俱之臨邛，盡賣其車騎，買一酒舍酤酒，而令文君當釀。

럼 장소의 이동과 신분을 뛰어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도 대화체 문장은 등장하고 있다.

卓王孫은 이 소식을 듣고 부끄럽게 여겨 두문불출하였다. 그러자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王孫에 이르기를 “1남 2녀의 자식이 있는데 부족한 것은 결코 재산이 아닙니다. 이제 文君이 이미 司馬長卿에게 몸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長卿은 여러 지방을 두루 여행하였고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그 재주는 족히 의지할만 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현령의 손님이거늘 어찌 이처럼 치욕스럽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卓王孫은 하는 수 없이 文君에게 시종 백 명을 나누어주고 백만의 돈과 처음 시집갈 때 장만했던 의복이며 이불, 재물을 주었다. 文君은 이에 相如와 함께 成都로 돌아가 밭과 집을 사고 부자가 되었다.<sup>14)</sup>

司馬相如와 卓文君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던 卓王孫이 주위 사람들의 설득으로 마침내 마음을 바꾸고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卓王孫의 생각이 바뀌자 그 결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제 司馬相如와 卓王孫은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분에 맞지 않는 술장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에도 대화체 문장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살기를 한 참 뒤에 蜀 사람 楊得意가 狗監의 벼슬에 올랐다. 천자는 子虛賦를 읽으며 마음에 들어하며 말하였다.

“짐이 이런 글을 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하는구나!”

이 말에 楊得意가 아뢰었다.

“신과 같은 읍에 사는 司馬相如라는 사람이 스스로 그 賦를 지었다 합니다.”

천자는 깜짝 놀라 곧 相如를 불러들였다. 相如가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하나 이는 諸侯들의 일로 천자께서 보시기에 족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天子游獵賦를 지었다가 완성되던 상주할까 하옵니다.” 천자는 이를 허락하고 尙書에게 筆札을 내리도록 명령하였다.<sup>15)</sup>

이제 司馬相如와 卓文君의 사랑 이야기는 대미를 장식한다. 司馬相如가 마침내 武帝의 인정을 받아 등용된다는 해피 엔드로 막을 내리고 있다. 司馬相如가 출세할

14) 卓王孫聞而恥之，爲杜門不出。昆弟諸公更謂王孫曰：「有一男兩女，所不足者非財也。今文君已失身於司馬長卿，長卿故倦游，雖貧，其人材足依也。且又令客，獨奈何相辱如此！」卓王孫不得已，分子文君僮百人，錢百萬，乃其嫁時衣被財物。文君乃與相如歸成都，買田宅，爲富人。

15) 居久之，蜀人楊得意爲狗監，侍上。上讀子虛賦而善之，曰：「朕讀不得如此人同時哉！」得意曰：「臣邑人司馬相如自言爲此賦。」上驚，乃召問相如。相如曰：「有是。然此乃諸侯之事，未足觀也。請爲天子游獵賦，賦成奏之。」上許，令尙書給筆札。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가 가진 천부적 재주 즉 뛰어난 賦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황제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우연한 기회에 武帝에게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천자를 알현하게 된다. 司馬遷은 司馬相如의 출세라는 대사건을 武帝와 楊得意 사이의 대화체 문장으로 시작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르면 우리는 역사서가 아닌 소설을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 Ⅲ. 〈風月瑞仙亭〉의 小說化 과정에서의 虛構的 敘事技法

#### 1. 등장 인물의 재 설정

《史記》〈司馬相如列傳〉이 소설의 성격을 띤 허구적 서사 기법을 사용한 史實의 기록이라면 〈風月瑞仙亭〉은 史實의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진 완전한 형태의 소설이다.

소설의 특징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탐구와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에 있다면 인물은 사건, 배경 등 소설을 이루는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sup>16)</sup> 〈風月瑞仙亭〉은 순수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史記》라는 역사서의 내용을 확대 발전하였기 때문에 등장 인물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양자가 동일하다. 즉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司馬相如와 卓文君이고 그밖에 卓文君의 아버지 卓王孫과 臨邛의 현령 王吉, 天子 즉 武帝와 천자에게 司馬相如를 천거했던 楊得意 등이 등장한다. 물론 〈風月瑞仙亭〉의 경우 〈司馬相如列傳〉에는 없던 卓文君의 몸종 春兒와 司馬相如의 몸종 琴童이 정도가 추가로 등장하지만 이들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司馬相如列傳〉과 〈風月瑞仙亭〉의 등장 인물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 인물의 재 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의 재 설정은 〈風月瑞仙亭〉이 소설로서의 구조와 성격을 갖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다. 만약 〈司馬相如列傳〉에서의 인물과 〈風月瑞仙亭〉의 인물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것은 소설의 인물을 생동하게 하는 데 흠이 될 수 있다. 소설은 현실과 다른 새로운 질서와 진실의 논리에 의하여 운행되는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이다.<sup>17)</sup>

16) 구인환(丘仁煥), 《소설론》(서울 : 삼지연, 1997), 252쪽 .

<風月瑞仙亭>의 인물 재 설정은 어디까지나 이 작품이 史實의 기록이라는 기록물의 성격에서 벗어나 허구적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인공 司馬相如의 경우를 보자. <司馬相如列傳>과 <風月瑞仙亭> 모두 도입 부분에서 주인공 司馬相如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주인공 司馬相如의 美化가 소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司馬相如列傳>에서는 司馬相如가 재물로 郎이 되었고 景帝 때 벼슬을 하여 武騎常侍가 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風月瑞仙亭>에서의 주인공에 대한 소개는 이와 다르다.

諸子百家의 학설에 통달하였고 經史에 정통하였다. 비록 江湖를 유랑하였지만 가슴에 품은 뜻만은 공명을 꿈꾸고 있었다. 성문을 나서 북쪽으로 약 七里 정도를 가면 昇仙橋라는 다리가 나온다. 相如는 다리 기둥에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대장부로 태어나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지 못한다면 내 다시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리.」 그리고는 북쪽으로 京洛까지, 동쪽으로는 齊楚에까지 이르렀다.<sup>18)</sup>

司馬相如가 재물로 郎이 되었다는 사실은 생략하였고, 武騎常侍라는 벼슬을 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 대신 그가 비록 벼슬을 못했지만 가슴속에 원대한 이상과 정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며 서술하고 있다. 주인공에 대한 美化 과정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美化는 司馬相如보다는 卓文君의 경우가 더욱 현저하게 이루어진다. <司馬相如列傳>에서 소개하는 卓文君은 친정에 머물고 있는 과부였다.

이 때 卓王孫의 딸 文君은 젊은 과부로 음악을 좋아하였다.<sup>19)</sup>

그런데 소설 <風月瑞仙亭>에서 그녀는 미모와 재능을 두루 갖춘 처녀로 등장한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어릴 적 이름을 文君이라 하였고 비녀를 꽂을 나이가 되었건만 아직 출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대단히 총명하고 자태 또한 출중하였다. 詩와 詞, 노래와 賦, 서예와 그림, 용 그림과 봉 자수, 바느질과 음주에 이르기까지 못

17) 丘仁煥, 앞 책, 256쪽.

18) 貫申百家, 精通經史. 雖然遊藝江湖, 其實志在功名. 出門之時, 過城北七里許, 曰昇仙橋. 相如大書於橋柱上: 「大丈夫不乘駟馬車, 不復過此橋.」 所以北抵京洛, 東至齊楚.

19) 是時卓王孫有女文君新寡, 好音

하는 게 없었다. 員外는 당연히 집안의 모든 일을 文君과 상의해서 결정하였다. 20)

이처럼 한 번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어 친정에 머물던 卓文君은 결혼할 나이에 들어선 아름답고 재주 많은 처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 더구나 그녀는 거부 卓王孫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독녀로 아버지가 집안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는 등 집안에서 그 지위가 확고하다. 1남 2녀 가운데 하나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집안 눈치나 보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는 《史記》에서의 卓文君과는 다른 신분으로 美化된 것이다.

卓文君의 인물 재 설정은 그 신분에서만 아니라 성격에서도 이루어진다.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두 사람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피를 감행하면서 절정에 이른다. 그런데 〈司馬相如列傳〉에서 사랑을 전하는 과정과 도피의 감행이 주로 남자인 司馬相如의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이제 卓氏 집에서 마시고 즐기며 琴을 연주하니 文君이 집 틈으로 몰래 엿보고 그 마음이 대단히 흡족하여 그를 좋아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에게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었다. 잔치가 끝나자 相如는 사람을 시켜 文君의 하인을 통해 후한 선물을 하며 은근한 정을 전하였다. 文君은 밤에 相如에게 도망을 쳤고 相如는 그녀와 함께 부리나케 成都로 돌아갔다. 21)

〈風月瑤仙亭〉에서는 오히려 여자인 卓文君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각설하고, 卓文君은 繡房에 갈 때마다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일 증매를 통해 구혼한다면 부친께서 허락해 주실 리가 없을 것이야. 그러나 또 한 편으로 내가 이런 사람을 놓쳐버린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거야.’

아가씨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 수재를 본 후로 밤낮으로 침식을 잊고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비록 여자의 도리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내 남은 일생과 관련된 일이다.’

相如가 대답하였다.

“아가씨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제게는 쪽이 있어 언제든지 소일할 수 있지요.”

20) 止有一女，小字文君，及笄未聘。聰慧過人，姿態出衆。詩詞歌賦，琴棋書畫，描龍刺鳳，女工針指，飲饌酒漿，無所不通。員外一應家中事務，皆與文君計較。

21) 及飲卓氏，弄琴，文君竊從戶窺之，恐不得當也。既罷，相如乃使人重賜文君侍者通殷勤。文君夜亡奔相如，相如乃與馳歸成都。



文君이 말하였다.

“첩은 선생께서 이처럼 도량이 넓고 다른 사람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께서는 저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알아보시고서 일부러 가볍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쥬 연주에 담긴 뜻을 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相如가 말하였다.

“아가씨께서 이 비천한 유생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枕席의 즐거움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말에 文君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첩이 선생의 재주와 덕을 사모하오니 箕帚의 봉양을 원합니다. 단지 선생께서 후에 은덕을 잇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文君이 말하였다.

“내일 부친께서 이 일을 알게되면 관청을 거처지도 않고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얼마 안 되는 황금과 진주를 거두어 오늘 밤 안으로 선생과 더불어 이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사는 게 좋을 것입니다. 만약 후에 부친이 우리를 그리워 해 다시 돌아와 일가족이 모이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相如와 文君은 瑞仙亭을 내려와 후원을 빠져나갔다.22)

이처럼 卓文君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 여자의 도리까지도 버려가면서 과감하게 司馬相如에게 접근한다.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진취적이고 용감한 여성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소설에서의 卓文君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쥬를 연주하면서 은근하게 육체적 사랑을 원하는 司馬相如에게 오히려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서 그 날 밤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부친의 반대와 이로 인해 司馬相如가 겪게 될 모욕과 고충을 짐작한 卓文君은 사랑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감행한다.

22) 且說卓文君去繡房中，每每存想：「……若待媒證求親，俺父親決然不肯。倘若挫過此人，再後難得。」

小兒口中不說，心下思量：「自見了那秀才，日夜廢寢忘食，放心不下。我今主意已定，雖然有虧婦道，是我一世前程。」

相如曰：「不勞小姐掛意，小生有琴一張，自能消遣。」文君曰：「妾早知先生如此迂闊，不來冒瀆。今先生視妾有私奔之心，故乃輕言。琴中之意，妾已備知。」

相如曰：「小姐不嫌寒儒鄙陋，欲就枕席之歡。」文君笑曰：「妾慕先生才德，欲奉箕帚，唯恐先生久後忘恩。」

文君曰：「只恐明日父親知道，不經於官，必致凌辱。如今收拾此少金珠在此，不如今晚與先生且離此間，別處居住。倘後父親想念，撤回，一家完聚，也未可知。」

## 2. 배경의 새로운 설정

소설의 구성 요소인 배경은 인물 설정이나 플롯에 비하여 그 비중이 덜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주어짐으로써 행동의 주체가 분명해지고 행동의 구체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소설의 배경은 중요하다. 또한 배경은 인물과 행동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소설의 일반적 의도에 대하여 적절한 분위기를 창조하며, 소설의 주제를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sup>23)</sup>

〈風月瑞仙亭〉에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 瑞仙亭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등장하는데 이는 〈司馬相如列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배경이다. 즉 史實의 기록에서 허구적 서사물인 소설로 전환되면서 소설의 성격을 더해주기 위한 장치로 새로 설정된 배경인 것이다.

〈風月瑞仙亭〉에서 瑞仙亭은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이루어지는 중요한 배경으로 설정되었다. 이 작품은 우선 卓王孫이 거부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부의 상징으로 瑞仙亭을 제시하고 있다.

卓王孫은 만금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 거느리는 노비만 수백에 달하였으며 건물은 사치의 극을 다하였다. 정원 가운데 花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瑞仙亭이라 하였다. 사면에 화초의 방향이 가득하고 비단으로 수를 놓은 듯 아름다워 가히 유람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만 하였다. 京洛의 어느 정원도 이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이러니 유람을 즐기는 공자들이나 강호의 사대부 치고 이 곳을 들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24)</sup>

瑞仙亭은 司馬相如가 卓王孫의 집을 찾아오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즉 司馬相如와 卓王孫의 딸 卓文君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바로 瑞仙亭이었던 것이다.

그 날 아침 듣자니 현령의 친구 司馬長卿이라는 사람이 문장이 뛰어난 유학자로 員外 집안의 정원과 연못이 天下絶景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특별히 놀러 온다는 것이었다.<sup>25)</sup>

23) 丘仁煥, 앞 책, 281-282쪽.

24) 卓王孫資才巨萬, 僮僕數百, 門閭奢侈. 園中有花亭一所, 名曰「瑞仙」。四面芳菲, 錦綉爛熳, 眞可遊覽休息. 京洛名園, 皆不能過此. 所以遊宦公子, 江湖士夫, 無不相訪.

25) 期日早晨, 聞說縣令友人司馬長卿, 乃文章巨儒, 知員外宅上園池佳勝, 特來遊翫.

司馬相如가 琴을 연주하며 鳳은 鳳을 구하기 위해 四海를 떠든다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곳도 또한 瑞仙亭이었으며, 두 사람이 서로 술잔을 나누며 부부의 연을 맺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나는 곳도 바로 瑞仙亭이었다.

文君이 몇 걸음을 건자 탐고 깨끗한 琴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瑞仙亭 쪽으로 걸음을 옮겨 다가가다가 꽃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연주 소리를 들으니, 바로 이리하였다.

鳳은, 鳳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四海를 떠드나니, 鳳을 구함이라.  
때를 만나지 못했음이여, 얻는 바가 없나니,  
오늘 저녁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정자에 오르니,  
아름다운 여인 閨房에 있고,  
방은 가깝건만 사람은 내 곁에서 멀리 있구나.  
무슨 인연으로 교분을 맺어 원앙이 될까?  
둘이서 같이 오르락 내리락 날개짓 하고파.

鳳은, 鳳은 내 사는 곳을 좇고,  
마침내 교미하고는 영원히 짝으로 삼네,  
情을 나누고 몸을 섞고 마음이 서로 어울리니,  
한 밤중에 서로를 쫓아도 뉘라서 이를 알겠는가?  
양쪽 날개 모두 들어 높이 날아 오르니,  
내 생각에 스스로 슬프게 할 아무런 감정도 없다네.<sup>26)</sup>

.....

相如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소생이 꽃 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으니 죽어도 그 마음은 즐거울 것이요.”  
文君이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침이 오늘 밤 이 곳에 왔으니 선생과 더불어 달을 즐기고 석 잔의 술을 마시고자 합니다.”  
春兒가 술과 과일을 瑞仙亭으로 차려 내왔고, 文君과 相如는 서로 대작하였다.<sup>27)</sup>

.....

26) 文君正行數步，只聽得琴聲清亮，移步將近瑞仙亭，轉過花陰下，聽得所彈琴音曰：鳳兮鳳兮思故鄉，遨遊四海兮求其鳳。時未遇兮無所將，何悟今夕兮升斯堂？有艷淑女在閨房，室邇人遐在我傍。何緣交頸爲鴛鴦？胡顏頗乎共翱翔。鳳兮鳳兮從我樓，得托孳尾永爲妃。交情通體心和諧，中夜相從知者誰？雙翼俱起翻高飛，無感我思使余悲。

27) 相如跪而告曰：『小生得見花顏，死也甘心。』文君曰：『請起。妾一夜到此，與先生同賞月，飲三盃。』春兒排酒菓於瑞仙亭上。文君、相如對飲。

술이 몇 순배 돌아 文君은 春兒를 시켜 술자리를 치우게 하고 떠나면서 말하였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相如가 말하였다.

“아가씨께서 이 비천한 유생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枕席의 즐거움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이 말에 文君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첩이 선생이 재주와 덕을 사모하오니 箕帚의 봉양을 원합니다. 단지 선생께서 후에 은덕을 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相如가 말하였다.

“소생이 어찌 감히 아가씨의 은덕을 잊는단 말리오?”

이에 文君은 부부의 인연을 허락하였다. 두 사람은 마치 鳳이 쓰러지고 난새가 뒤집히듯, 순간 순간 구름이 걷히고 비가 흩뿌리듯 하였다.<sup>28)</sup>

이러한 瑞仙亭이라는 〈司馬相如列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새팅을 통해 〈風月瑞仙亭〉은 소설의 성격을 갖추게 된다. 즉 瑞仙亭을 통해 이루어지는 司馬相如와 卓文君 두 사람의 사랑이 그 행동에 있어 훨씬 구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한 편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에 성공하고 있다.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순수한 사랑과 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두 남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瑞仙亭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瑞仙亭은 이처럼 작품의 주제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 IV. 結論

《史記》에 처음 보이는 司馬相如와 卓文君과의 사랑 이야기는 〈風月瑞仙亭〉이라는 이름의 話本小說로 다시 태어났고, 이 작품은 다시 〈俞仲學題詩遇上皇〉의 頭回로 쓰이면서 확대 발전되었다.

본 논문은 《史記》의 〈司馬相如列傳〉과 〈風月瑞仙亭〉의 서사 기법을 비교해 보았다. 前者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기록물이고, 後者는 허구적 소설이니 그 서사 기법 또한 서로 다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司馬遷이 역사서 《史記》를 저술하면서 인물 묘사나 사건 묘사, 서사 구조 등 방면

28) 酒行數巡, 文君令春兒收拾前去: 『我便回來。』相如曰: 『小姐不嫌寒儒鄙陋, 欲就枕席之歡。』文君笑曰: 『妾慕先生才德, 欲奉箕帚, 唯恐先生久後忘恩。』相如曰: 『小生怎敢忘小姐之恩!』文君許成夫婦。二人倒鳳順鸞, 頃刻雲收雨散。

에서 소설적 기법을 활용하였음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司馬遷의 소설적 기법 활용은 〈司馬相如列傳〉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허구적 서사 기법이야말로 司馬相如와 卓文君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人口에 膾炙되고 소설이나 희곡으로 재생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司馬遷이 〈司馬相如列傳〉에서 주로 활용한 소설적 서사 기법은 서술 시간의 조절과 대화체의 활용이었다. 이러한 서사 기법의 활용으로 단순하고 평면적인 역사적 기록이 생동감과 입체감이 넘치는 허구적 성격의 기록물로 거듭 날 수 있었다.

한 편, 《史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風月瑞仙亭〉은 등장 인물과 배경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 역사적 기록물을 허구적 소설로 재탄생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史記》에서 소개한 司馬相如와 卓文君의 사랑 이야기 자체가 당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흡인력을 갖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소설 역시 내용 자체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많았지만 〈風月瑞仙亭〉에서는 여기에 더 하여 등장 인물을 美化하고 瑞仙亭이라는 새로운 새팅을 추가함으로써 소설로서의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史記》의 기록이 단지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만 충실하였다면, 그래서 司馬遷이 보여준 허구적 서사 기법이 없었다면 이는 뒤에 소설로 나온 〈風月瑞仙亭〉의 '파블라'로 간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史記》의 기록은 단순한 '파블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쉬제' 〈風月瑞仙亭〉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동기와 재료를 제공해 준 또 다른 '쉬제'였다.

### 【參考文獻】

- 司馬遷, 《史記》, 臺北 : 鼎文書局, 1982.  
 班固, 《漢書》, 臺北 : 鼎文書局, 1982.  
 洪楙 編輯, 《清平山堂話本》, 南京 : 江蘇古籍出版社, 1994.  
 丘仁煥 著, 《小說論》, 서울 : 三知院, 1997.  
 金天惠 著, 《소설 구조의 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5.  
 河乙鳳, 《史記》중의 所說의 特性 研究, 한국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金聖日, 史記列傳의 人物描寫技巧研究, 전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中文提要】

司馬相如與卓文君之間的愛情故事，在中國家喻戶曉，膾炙人口。漢朝歷史學家司馬遷之所以將司馬相如列傳列入《史記·列傳》裡，主要是由於他對司馬相如通過賦表現出來的文學才華，給予了高度評價。但司馬遷的後裔不太重視司馬相如的賦，反而是司馬遷在《史記》中介紹的司馬相如與卓文君之間的愛情故事更受廣大中國民衆的歡迎。很多藝術家和文學家以《史記·司馬相如列傳》裡的愛情故事為題材，演戲劇或寫小說。宋代話本《風月瑞仙亭》也是以司馬相如與卓文君間的愛情故事為題材而完成的一部小說。

司馬遷的《史記·司馬相如列傳》是歷史記載；《風月瑞仙亭》是小說。也就是說，前者是歷史學家以客觀的態度記述歷史上真實存在的一個人物的文獻記錄；後者是以前者的歷史記錄為題材，加以虛構而完成的小說。所以我們可以說，《史記·司馬相如列傳》是話本小說《風月瑞仙亭》的創作素材。

可是，我們在進一步分析《史記·司馬相如列傳》時，不難發現它雖然是歷史記錄，但歷史學家司馬遷已經充分利用小說上的敘事技法，而使這段歷史記錄變成活生生的一種簡短的敘事文學作品。後來的話本小說《風月瑞仙亭》也是一樣。雖然它基本上以《史記·司馬相如列傳》的歷史記錄為題材完成作品，但它運用了獨特的敘事技法，使歷史記錄成功地轉換成爲一部完整的小說作品。

本篇論文主要就《史記·司馬相如列傳》所表現出的敘事技法和話本小說《風月瑞仙亭》在把簡短的歷史記錄演變成小說作品過程中使用的敘事技法，進行了研究和分析。研究結果發現，《史記·司馬相如列傳》裡的愛情故事後來能受到廣大中國民衆的歡迎，應該歸功於司馬遷盡情發揮的、帶有小說特色的敘事技法。同樣的，宋代話本《風月瑞仙亭》能獲得成功，也與它運用的小說上的敘事技法息息相關。

## 【주제어】

사마상여열전, 풍월서선정, 서사기법